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왕자가
목자가 되다



저자: Edward Hughes

삽화: M. Maillot; Lazarus

각색: E. Frischbutter; Sarah S.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어느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봤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고 교육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는 노예를
도와야 했다.



근처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힐끗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모세는 잔인한 노예 지배자를 공격했다. 곧 일어난 싸움에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빨리, 그는 시체를 묻었다.



다음날,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멈추려 했다. 그 중 하나가 말했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를 죽일 건가요?" 모세는 두려웠다. 모든 사람들이 어제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바로도 알게 되었다. 모세는 도망 가야 했다. 그는 미디안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갔다.



모세가 우물에 기대 쉬고 있을 동안, 미디안 성직자의 일곱 딸들이 그들 아버지의 양 무리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구유들을 채우고 있었다.



다른 목자들은 그들을 옆으로 밀기 위해 노력했다. 모세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도와 주었다.



“집에 빨리 왔구나!” 딸들의 아버지인 르우엘이 아버지가 외쳤다. 딸들이 이유를 설명하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 남자를 모셔 오거라.” 모세는 이드로라고도 불리우는 르우엘과 함께 살았다. 후에, 모세는 르우엘의 장녀와 결혼했다.



반면 이집트에선, 바로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인들은
아직 종이였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
했을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 된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를 사용하시기로 계획 하셨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다. 그는 르우엘의 양 무리의
목자였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어느날 모세는 주위에 있는 떨기 나무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불꽃은 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았다.
모세는 그 이유를 찾기로 결심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중에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가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셨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 올렸을 때,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 주셨다.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명령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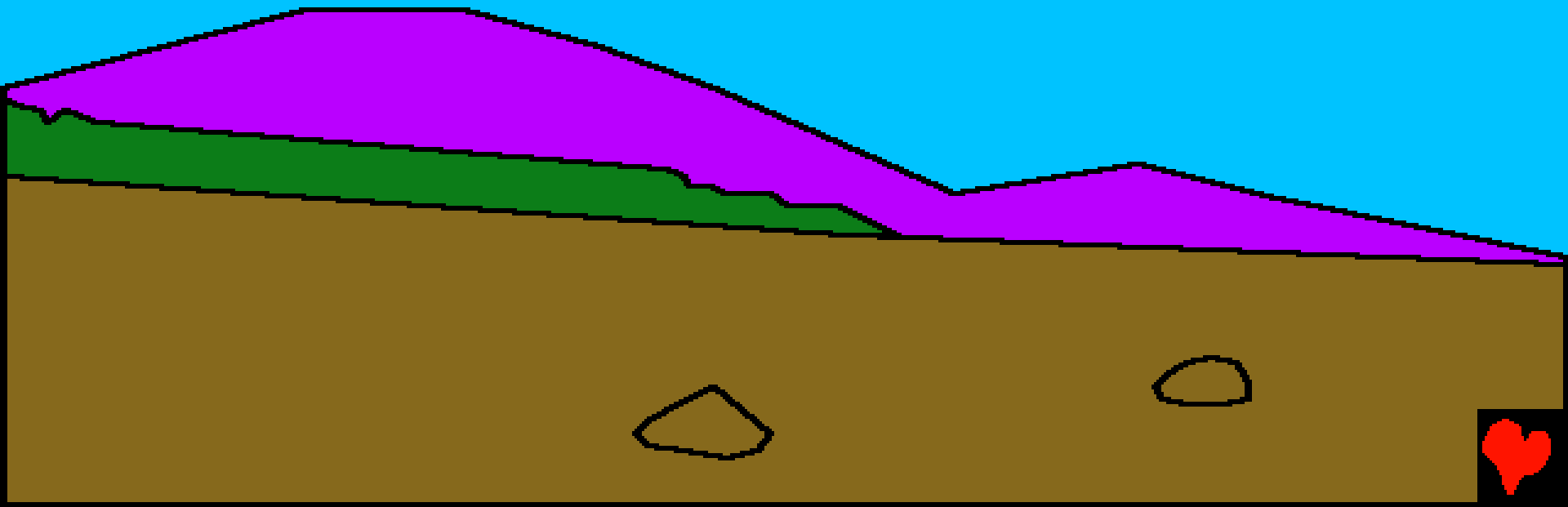
모세가 말씀에 따랐다.



모세의 손이 문둥병과 함께 희어졌다. 그가 다시 시도 했을 때, 그의 손은 고쳐졌다.



모세는 계속 거부했다. “저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은 노여워 하셨다.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네가 그에게 말하는 말을 그가 말하도록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짐을 싸고 이집트로
향하여 떠났다.



하나님께서서는 산에서 모세의 형제 아론이 모세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다.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했다. 함께, 그들은 그 소식을 히브리 지도자들에게 전했다. 모세가 표징을 히브리 장로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을 알았다. 함께,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용감하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 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 "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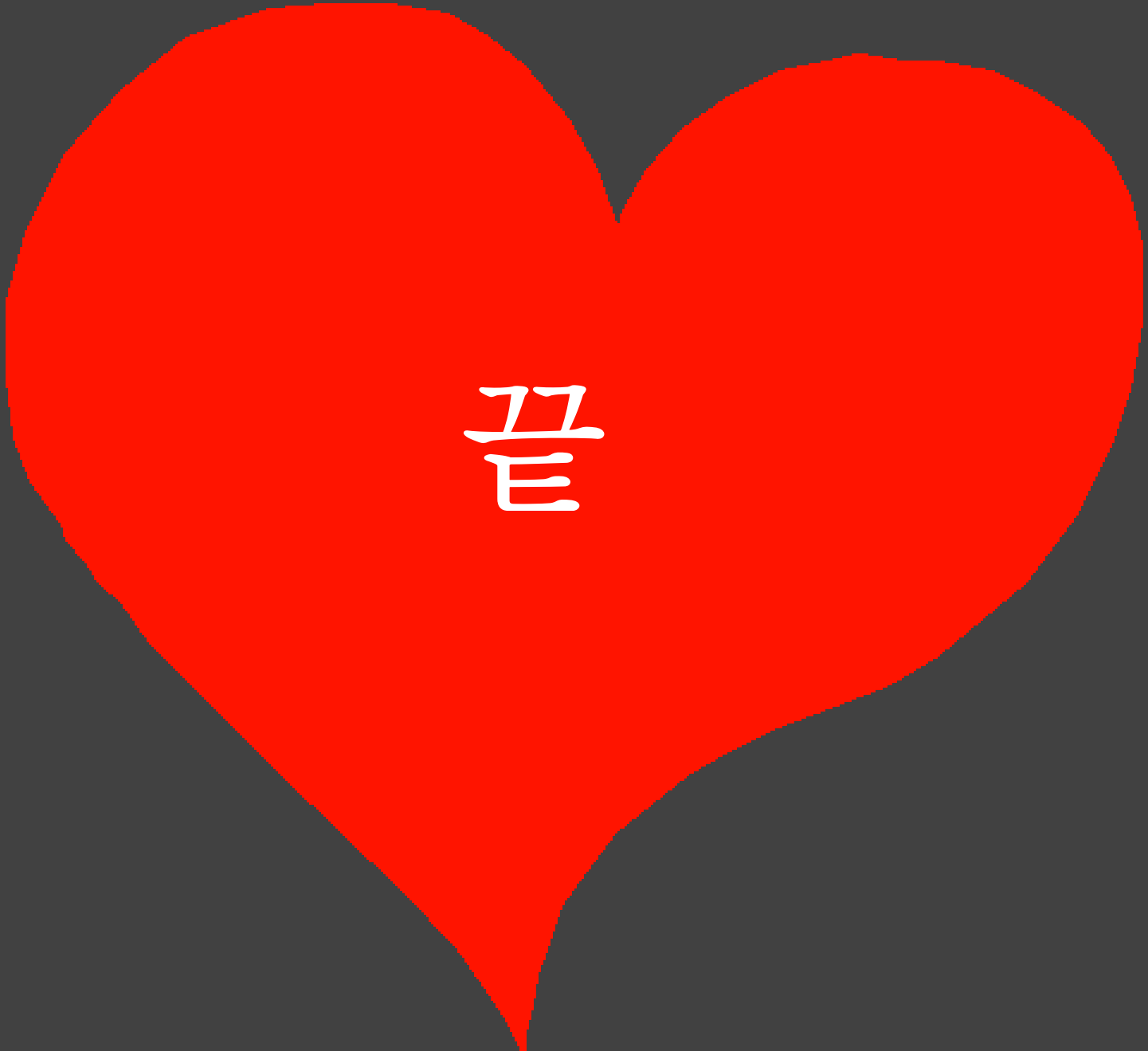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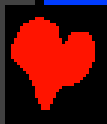
출애굽기 2장-5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